

휴가

강화길

소설가

그해 여름, 우리는 친자매인 척했다.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경인언니와 나는 사촌지간이었고, 생김새가 꽤나 많이 닮았으니까. 물론 얼핏 보면 닮은 점이 별로 없었다. 경인 언니는 얼굴이 통통하고 눈이 컸지만 나는 사각턱에 쌍꺼풀이 없는 눈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입술 모양이 똑같았다. 내게는 친할머니, 그러니까 경인언니에게는 외할머니인 이경자에게 물려받은, 아랫입술이 도톰한 모양새의 작은 입술이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웃는 모습이 매우 비슷했다. 그러다보니 뭐랄까, 분위기도 비슷했던 모양이다. 솔직히 나는 그 분위기와 느낌이라는 게 뭔지 도통 알 수 없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기에 그런가보다 했다. 아, 나랑 경인언니는 많이 닮았구나. 혈육은 혈육이구나. 우리는 그런 사이이구나, 이러면서.

실제로 우리는 꽤나 가까웠다. 우선 물리적으로 그랬다. 고모네 가족과 우리 가족은 모두 한 동네에 살았다. 김장철이 되면 함께 김치를 담았고, 가족들의 생일이 되면 잊지 않고 꼬박꼬박 모여 밥을 먹었다. 그러다보니 경인언니와 나는 서로의 친구들보다 더 자주 만났다.

나는 좋았다. 정말 좋았다. 나는 외동딸이었고, 친구가 별로 없었다. 경인 언니를 만나면 혼자 있을 때 밀려드는 어떤 감정들, 그러니까 이유 없이 차오르는 슬픔이나 외로움 같은 것들이 가라앉곤 했다. 이제는 안다. 그게 바로 사랑이었다는 것을. 그래. 나는 경인언니를, 우리를 둘러싼 많은 것들을 사랑했다. 경인언니도 그랬을까. 그랬던 것 같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그렇지 않았다면 나를 데리고 그런 일을 저질렀을 리 없다.

그해 여름, 언니는 가족을 바꾸려 했다.

그 사람들, 낯선 사람들. 그것, 그것들. 동네 사람들은 엄마와 아빠를 그렇게 불렀다. 내 친엄마와 친아빠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여름에 잠시 그렇게 불렀던 두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이영진과 오연주. 그해 우리 마을에 이사 온 ‘나이롱 부부’였다. 그들은 불륜

관계였다. 이영진은 부인이 있었지만, 사이가 좋지 않았다. 부인에게는 애인이 있었다. 오연주의 경우 남편이 회사 자금 횡령 혐의로 감옥에 가 있었다. 이미 정이 떨어진 지 오래였지만, 남편은 이혼을 해주지 않았다. 두 사람은 힘든 시기에 만났고, 사랑에 빠졌고, 새 출발을 하려 많이 노력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 그들의 배우자들 역시 자신의 삶을 위해 포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때문에 이영진과 오연주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 계속 그렇게 사는 것뿐이었다. 불안하고 외로운 방식으로. 동네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매우 남사스러운 짓거리로. 어쨌든 그들은 우리 마을의 탄천맨션 203동 3층에 자리를 마련했다. 살림을 차린 것이다.

고백하자면 열한 살이었던 그 시절, 나는 이런 사실들을 전혀 몰랐다. 나는 그들이 우리 부모님과 마찬가지로 결혼을 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 그렇지 않고서는 남자와 여자는 함께 살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그때 내 생각의 최선이였다. 그래서 어느 날 경인언니가 그 집에 놀러가자는 말을 꺼냈을 때, 어떤 거리낌도 없었다. 나는 언니를 좋아했고, 언니를 따라다니는 걸 좋아했다. 멀쩡해 보이는 어떤 여자와 남자의 집에 가서 소꿉놀이를 하듯 놀다 오는 일에 왜 위화감을 느끼겠는가. 하지만 동시에 내가 그들의 관계를 알았다고 해서 어떤 거부감이 있었을까? 그들이 같이 사는 것에 대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것에 대해서 과연 내가 어떤 판단을 할 수 있었을까? 적어도 경인언니는 그런 가치 판단을 하지 않았다.

열세 살이었던 그녀는 분명 나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언니는 그들을 좋아했다. 언니 말로는 시장에서 길을 잃었을 때 오연주를 우연히 만나서 알게 되었다고 했지만, 내 생각에는 언니는 꾸준히 그들에게 관심을 가졌던 것 같다. 그들이 우리 마을에 들어왔을 때부터, 이런 저런 소문을 달고 다니며 많은 시선을 받을 때부터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니가 그들을 그토록 따른 것은, 그래, 역시 사랑했기 때문이다.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했던 것이다. 어쨌든 나는 언니의 말을 따라 탄천 맨션 203동에 드나들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내게 매우 잘해주었다. 마치 친자식처럼 말이다. 아마 그들은 나름대로 그런 기분으로 우리를 대했던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다. 그렇다. 아마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어차피 우리는 자식을 낳을 수 없을 테니까. 결혼을 할 수 없을 테니까. 그러니 이상할 정도로 우리를 잘 따르는 이 여자애들을 친자식인 셈치며 한번 지내보자. 그렇게 해보자.

그래서 그해 여름, 우리는 한 가족처럼 휴가를 갔다.

그날 바닷바람을 여전히 기억한다. 이영진과 오연주, 그러니까 아빠와 엄마, 나와 경인 언니. 우리는 그날 동해로 놀러갔다. 흔들리는 차 속에서 만화영화 주제가를 따라 불렀다. 지금도 부를 수 있다. 미안해 솔직하지 못한 내가. 밤하늘 저 멀리서 빛나고 있는 꿈결 같은 우리의 사랑. 전생에 사랑을 이루지 못한 공주와 왕자가 현대에 다시 태어나, 세상을 지키는 용사가 된다는 이야기. 아빠는 노래를 크게 틀어

주었고, 엄마는 경인언니가 만화영화에 대해 열변을 토하는 걸 웃으며 들어주었다. 나는 그런 세 사람을 보며 과자를 먹었다. 나의 친엄마라면 절대 사주지 않았을, 치토스와 버터링 쿠키. 불안한 것도 없었고 가책이 느껴지지도 않았다. 그건 친구 집에 놀러가는 것과 비슷했고, 놀이터에 가는 것과도 비슷했다. 치토스와 버터링. 만화 주제가. 차창 안으로 흘러들어오는 바닷바람. 웃음소리. 엄마. 아빠. 행복했다.

문제는 식당에서 일어났다.

회집이었다. 과자를 많이 먹은 탓인지 나는 속이 더부룩했다. 뭘 먹든지 별 관심이 없었다. 반면 경인언니는 반찬이 나올 때마다 우와, 우와 소리를 내며 눈을 반짝였고 광어회가 나왔을 때는 요란하게 손뼉을 쳤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이 상황이 조금 어색하다고 느꼈다. 아니, 부끄럽다고 느꼈다고 해야 맞을까. 언니의 행동은 어딘가 분명 과장되어 있었다. 반찬 하나하나에 이렇게 감탄할 일인가. 언니는 분명 엄마와 아빠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기이한 압박감을 느꼈다. 이 놀이에서 뭔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 같은, 어떤 감탄을 내뱉어야만 할 것 같은 기분을 말이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건 낯선 강박 때문이 아니라, 익숙한 풍경이 되돌아온 것에 대한 공포 때문이었다.

우리의 진짜 가족. 그러니까 고모네 가족들과 우리 가족이 모여 있을 때, 경인언니는 항상 그런 과장된 행동을 하곤 했다. 큰고모에게 유독 친근하게 굴었고, 외삼촌과 외숙모 - 나의 친부모 - 에게도 그랬다. 마치 우리 가족은 굉장히 다정하고 화목한 사람들인 것처럼, 그걸 자신이 증명하고 있다는 것처럼 쉼 없이 깔깔대며 웃고 감탄을 연발했다. 어색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 부모님과 언니의 부모님들은 그다지 사이가 좋다고 할 수 없었고, 큰고모 역시 자신의 형제들에게 데면데면하게 굴었기 때문이다. 영문을 알 수 없는 노릇이다. 그렇게 서로 생각이 다르고 관심도 없었으면서, 한 마을에서 왜 그토록 오래 붙어 살았을까. 뭐하러 김치를 나누어 먹고, 생일 때만 되면 시골벽적으로 모여서 밥을 먹어 댔을까. 왜 그랬을까.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조금도 사랑하지 않았으면서.

언니의 행동에 살짝 긴장해 있는데,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남자가 갑자기 큰 소리를 냈다.

“와, 진짜 이게 뭐야?”

우리 모두 깜짝 놀랐다. 그 가게에는 큰 소리를 낸 남자와 일행인 여자, 그리고 우리들뿐이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큰 소리를 냈으니 말이다. 가게 주인이 힐끔거리며 남자를 쳐다보았다. 들어보니 별건 아니었다. 남자는 가게에 놓여 있는 신문을 보고 화를 낸 것이었다. 처음에 나는 그 신문에 실린 어떤 불행한 기사 때문에 남자가 화를 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남자는 그냥 그 신문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

“그만 좀 해.”

남자의 앞에 앉은 여자가 속삭이듯 말했다. 남자는 소주를 들이키며 대답했다.

“뭘 그만해? 이런 신문은 없어져야 해. 내가 저것만 보면 아주 열불이 터져.”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남자는 또 소주를 마시며 말했다.

“다시는 이 가게 안 온다. 내가 열이 뻘쳐서 살 수가 없네. 어떻게 이따위 신문을 구독해?”

여자는 포기했다는 듯 혼자 회를 집어 먹었다. 남자는 계속 혼자서 말했다.

“사람이 말이야.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지. 부끄러운 줄.”

그 순간 엄마의 얼굴이 붉어졌다. 아빠는 모른 척, 사이다를 컵에 따라 내 앞에 놓아 주었다. 나는 사이다를 한 번에 다 마셨다. 남자는 계속 혼자 떠들었다. 같은 말이었다. 이 신문은 나쁜 것이다. 나쁜 짓을 하는 건 옳지 않은 짓이다. 이 가게는 옳지 않은 짓을 하고 있다. 다시는 이 가게에 오지 않을 것이다. 그는 마지막에 가게 주인이 들으라는 듯 목소리를 조금 더 높여 말했다.

“내가 말이야. 다른 건 몰라도, 신념은 있어.”

여자가 젓가락을 테이블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다. 지긋지긋하다는 듯 그를 쳐다봤다. 엄마와 아빠는 그들에게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경인언니 역시 마찬가지였다. 아니, 경인언니는 마치 그들을 보지 못했다는 듯 행동했다. 여전히 행복을 과장되게 과시하며 엄마와 아빠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 모두를 지켜보았고, 천천히 숨이 막혀오는 것을 느꼈다. 뭔가 참을 수가 없었다. 견딜 수가 없었다. 그 순간, 경인언니가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엄마에게 건넸다.

엄마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졌다. 그녀는 언니에게 물었다.

“너..... 이거 어디서 났어?”

“도서관 책에서 복사했어요.”*

아빠가 종이를 건네받았다. 그의 얼굴이 조금 하얗게 질렸다. 하지만 그는 침착한 목소리로 경인언니를 달래듯 말했다. 어디 한번 생각해보자고. 그리고서 종이를 언니에게 되돌려 주었다. 그 순간 나는 그 종이에 적힌 글자들을 보았고, 왜 두 사람이 그렇게 놀랐는지 곧장 이해했다. 그건 입양서류였다. 아, 언니는 그들에게 자신을, 아니 나와 자신을 함께 입양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었다.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말 그대로 엉엉 울었다.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다. 엄마와 아빠는 당황했고, 언니 역시 그랬다. 엄마와 아빠는 나를 데리고 가게에서 나왔다. 술에 취한 남자가 계속 화를 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해.

나는 차 속에서도 내내 울었다. 동해로 떠나갈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네 사람 중 누구도, 몇 시간 동안 입을 열지 않았다. 그리고 집 앞에 당도했을 때, 우리는 친부모님을 마주했다. 어떻게 알았는지 그 집 앞에 모여 들어서 뭐라 뭐라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나는 또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나의 친부모님에게 달려가지는 않았다. 그것 때문에 울었던 것이 아니다. 나는 그럴 수가 없었다. 내가 온종일 엄마, 아빠라고 부른 사람들과 나의 진짜 엄마 아빠 사

이에서 나는 누구도 선택하지 못한 채 그저 울기만 했다. 경인언니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내 손을 꼭 잡은 채 어디로도 가지 않고 그대로 서 있었다. 결국 우리를 움직인 건 친부모님들이었다. 그들이 우리에게 달려왔고, 우리를 끌어안았고, 자신들 쪽으로 잡아 당겼다. 우리를 그렇게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놨다.

그 일은 그렇게 끝났다.

이후 우리, 그러니까 고모의 가족들과 나의 가족들, 그리고 경인언니는 그때 일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결코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래서 이영진과 오연주가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른다. 아주 나중에, 두 사람이 결국은 헤어졌다는 이야기만 들었다. 그해 여름 내내, 내가 엄마와 아빠라고 불렀던 사람들. 그리고 정말로 나의 엄마와 아빠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사람들. 선택할 수만 있다면 선택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최근, 두 사람이 다시 만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 무엇이든 부끄럽지 않다.

* 이 대사는 영화 마틸다의 한 장면을 오마주한 것이다.